

북-중 경제 관계 현황과 전망

-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도를 중심으로 -

2005. 12

kotra

- 목 차 -

[본문]

I. 문제제기 / 1

II. 북-중 경제 관계의 역사 / 4

III. 북-중 경제 관계 현황 / 8

IV. 북-중 경제관계 심화의 배경 / 29

V.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도 현황과 전망 / 36

VI. 북-중 경제 관계 심화의 영향과 우리의 대응 방안 / 42

[표]

- (표 1) 북한의 대중 무역추이 / 8
- (표 2) 북한의 교역 비중 변화 추이 / 10
- (표 3) 북한의 주요 대중 수출품 / 12
- (표 4) 북한의 주요 대중 수입품 / 14
- (표 5) 북한의 원유도입 실적 / 15
- (표 6) 북한의 대중국 곡물 도입 실적 / 16
- (표 7) 북한의 중국 지역별 수출입 실적 / 18
- (표 8) 연도별 중국의 대북 투자현황 / 19
- (표 9) 중국의 대북한 투자의 대표적 사례 / 24
- (표 10) 북한의 무역방식별 대중 수입 실적 / 27
- (표 11) 연도별 중국의 대북 무상원조 실적 / 27
- (표 12) 90년대 후반 이후 중국 해외투자진출액 추이 / 33
- (부록) 최근 중국의 대북한 품목별 수출입 금액 / 44

[그림]

- (그림 1) 북한의 대중 무역추이 / 9
- (그림 2) 북한의 무역 총액과 북-중 무역액의 관계 /9
- (그림 3) 북한 교역에서 中·韓·日 비중 추이 / 11
- (그림 4) 북한의 대중 수출품별 비중 / 13
- (그림 5) 중국의 연도별 대북 투자 실행액 / 20
- (그림 6) 90년대 후반 이후 중국 해외투자진출액 추이 / 33

※요약

■ 문제제기

- 장쩌민 국가주석의 방북 이후 4년 만에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방북하여 김정일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개최.
- 긴밀하게 전개되고 있는 양국의 관계는 경제적 측면에도 반영되어 북-중 교역은 최고치를 연속 경신하고 있으며, 중국의 대북투자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음.
- 이러한 변화에 대해 북한이 중국의 동북 제4성으로 전략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 따라서 현 시점에서 우리는 최근의 북-중 경제관계를 살펴보고, 양국 경제 관계의 심화의 배경과 그 전망을 짚어보며, 여기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고찰해보아야 할 것.

■ 북-중 경제 관계의 역사

- 한국전쟁으로 맺어진 북-중 관계는 혈맹, 순치의 관계로 전략적 이해관계가 우선되어 양국의 경제관계는 중국의 북한에 대한 일방적 지원의 성격을 띠고 있었음.
- 1990년대 초 중국의 외교가 실리주의로 전환되고, 1992년 한-중 수교가 타결되면서 양국 관계는 소원해졌으며,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도 경제논리를 적용하기 시작.
- 그러나 1990년 후반, 양국정부는 양국관계의 악화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공유, 특히 경제위기로 북한체제가 붕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양국관계 복원에 노력.
- 2000년대 들어, 양국 고위급 인사들의 활발한 교류가 진행되면서, 경제관계가 심화되기 시작, 지난해 북-중 교역이 북한의 전체 교역액(남북교역 포함)에서 39.0%를 차지, 투자협정액도 급증하는 등 양국의 밀월관계는 최정점으로 치닫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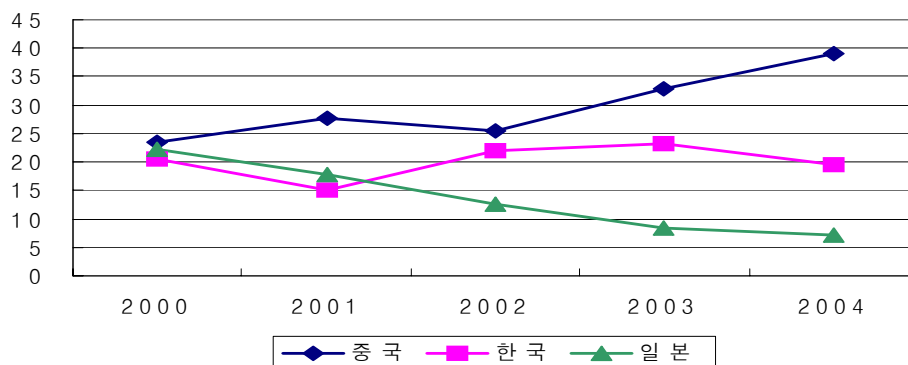
■ 북-중 경제 관계 현황

○ 무역

- 2000년 이후 무역액 지속적 증가
- 2005년 사상 처음으로 수입액 10억 달러를 돌파하여, 무역총액은 15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
- 교역의존도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

북한 교역에서 中·韓·日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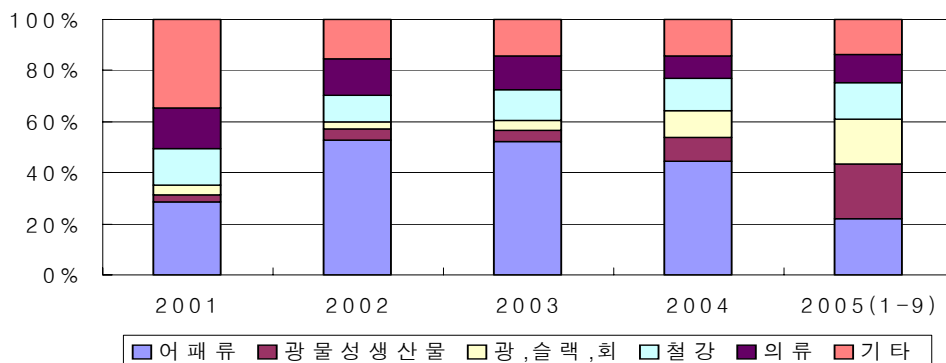
(단위 : %)



- 북한은 수산물 및 광물, 철강, 아연, 나무 등 기초 원자재를 주로 수출하고 있음. (2005년(1월~9월)의 북한의 대중 수출품 중 기초원자재가 전체 수출액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음)
- 올해 들어 지하자원(26,27,72류)의 대중 수출이 급증하면서 대중 수출품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해부터 중국의 대북 지하자원에 대한 투자가 본격화됨에 따라 북한의 지하자원의 대중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됨.

북한의 대중 수출품별 비중

(단위 : %)



- 대중 수입품은 주로 곡물, 식용유류 등 주민생활에 필요한 식량과 전기기기, 플라스틱 제품 등 생필품들, 그리고 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료, 기계, 철강 등에 집중.
- 비산유국인 북한이 필요로 하는 원유 및 에너지의 대부분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음.

○ 투자

- 2002년 7·1조치 이후 기업의 독립채산제가 확립되고 비즈니스 관행이 정착되기 시작하면서 대북 투자는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중국 기업의 대북 투자 실행은 2002년 4개사 1,503천불, 2003년 5개사 3,526천불, 2004년 8개사 8,998천불을 기록했다. 특히 2004년 투자액이 전체 누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8.6%에 달하여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
- 현재 북한의 외자 유치액 중 중국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총 외자유치액 통계가 부재하여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언론에 나타난 북한 인사들의 발언을 종합해 볼 때, 대단히 클 것으로 추정됨.
- 현재 중국의 대북투자는 자원 개발 투자에 집중되어 있으나, 타 영역으로 투자 확대 중.

○ 원조

- 중국의 대북 무상원조는 북한의 대중 전체 수입 금액에서 1~5% 차지할 정도로 미미한 수준임.
- 2004년 한국의 대북 무상원조는 2억 5,520만 달러로, 중국의 대북 무상원조는 한국의 5.7%에 불과한 수준임.
- 또한 무상원조가 대부분 양국 고위급이 참석하는 외교행사 때 정치적 결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규칙적으로 증감을 반복.

■ 북-중 경제관계 심화의 배경

○ 정치적 배경

- 중국은 북한의 붕괴를 방지하여 북한을 사회주의의 방어벽으로 삼고, 북한에 일정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려는 전략적 이익에 따라 북한에 대한 경제 관계 심화에 매진.

- 북한은 북핵문제로 미·일의 경제제재가 강화되어 중국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여기에 북-중간 우호관계의 역사도 일조

○ 경제적 배경

- '세계의 공장'인 중국 경제의 급성장에 따라 직면하게 된 원자재 난타개를 위하여 북한을 이용.

- 중국 정부의 국가전략의 하나인 투자진출정책(走出去,저우추취) 기조와 무관하지 않음.

- 北, 對中 투자유치를 통해 내부의 경제난을 해소하려 함.

- 중국의 대북 투자 증대는 북-중 무역의 추가적인 증가로 이어짐.

■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도 현황과 전망

○ 현황

- 북한 무역 총액의 40%를 육박.

- 식량과 주요 생산요소 등은 대부분 중국으로부터 수입.

- 북한의 외자 유치 중 상당부분이 중국 자본. 한 북한 인사에 따르면 현재 기업수에서는 40%정도, 투자액 규모에서는 80% 정도가 중국의 것으로 추정됨.

○ 전망

- 북핵문제의 해결이 지체되고 있고, 북한의 대중 수입품 중 많은 부분이 쉽게 다른 시장으로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북한의 대중 무역 편향성은 더욱 커질 것.

- 중국의 대북 투자 급증도 북-중 교역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중국의 투자진출정책(走出去,저우추취)하에, 중국기업들이 비교우위를 발휘할 수 있는 북한지역에 대한 투자는 증가할 것.

- 현재까지 중국의 대북투자가 소규모 자원형 투자와 수출 가공형 투자에 그쳤던 반면, 앞으로는 북한내부시장을 목표로 하는 인프라 구축형 투자로 확산될 것이며, 또한 인프라 구축은 기존의 자원형 투자와 수출 가공형 투자를 더욱 큰 폭으로 확대시키는 바탕이 될 것임.

■ 북-중 경제 관계 심화의 영향과 우리의 대응 방안

○ 영향

- 중국의 대북 투자 증가로 운송·물류 인프라의 구축, 자원 개발 및 활용과 같은 각종 프로젝트들이 본격화되면서 북한경제회생과 산업재건에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측면은 있음.
- 그러나 북한이 제품을 생산해 내수시장을 구축하기 전에 중국 제품의 소비지로 전락하게 될 수 있음.
- 중국 자본의 대북 진출의 확대는 남북경제교류 협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

○ 대응 방안

-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도의 심화를 견제하기 위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은 매우 제한적.
-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중국은 영향력을 가지고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끌어내면서 북한의 경제의존도가 우려할 정도로 심화되지 않도록 미국과 일본 등 우방국의 역할도 이끌어 내 한반도의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노력할 필요가 있음.

I. 문제제기

■ 긴밀해지는 북-중 관계

○ 4년 만에 이루어진 중국지도자의 방북

- 지난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방북, 김정일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개최, 이는 2001년 9월 장쩌민 국가주석의 방북 이후 4년 만에, 그리고 후진타오 체제 출범 이후 최초로 이루어진 북한에서의 북-중 정상회담이었음.
- 방북의 시기가 11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국을 방문하기 전이라는 점도 북한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것으로 평가됨.
- 정상회담의 결과는 명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양국은 경제기술 협력협정에 서명, 경제협력을 확대해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로 합의했으며, 북한은 제5차 6자회담 참석을, 중국은 대북 경제지원(20억 달러의 규모)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짐.

○ 최근의 양측 우호성명

- “조중관계가 최전성기를 맞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은 후진타오 동지의 중국 새 영도집단이 조중 친선에 얼마나 큰 힘을 쏟고 있는가를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노동신문(10월 15일 자)에서 중국이 무상지원하여 건설된 대안친선유리공장을 지적하며)
- “조중 친선을 대를 이어 강화 발전시키겠다.” (북한이 중국 국경절(10월 1일)에 보낸 축전)
- “중조 우호협력 관계를 새롭고 더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는 것은 중국 공산당의 확고한 방침이며 이것이 이 지역 안정에 유리하다.”

(중국이 북한 노동당 창건 60주년에 보낸 기념 축전(10월 10일))

○ 북한에 있어 중국은 제1의 무역국이자 투자국

- 2004년 북-중 무역 총액은 13억 8,500만 달러로 북한 전체 교역량의 48.5%(남북교역 제외시)¹⁾를 차지. 1995년 일본에 최대 교역상대국의 지위를 내준 것을 제외하고는 1991년 이후 줄곧 북한의 최대교역국의 지위를 유지.
- 2004년 중국의 대북투자 합의 금액은 1억 7,350만 달러를 기록하여 2003년의 130만 달러에 비해 130배 폭증, 제1의 투자국으로 부상.²⁾

■ 문제의 소재

○ 北, 중국의 동북 4성이 될 것인가?

- 경제회복을 위하여 외자도입의 필요성이 절실한 북한에게 대북 경제 제재 움직임으로 국제적으로 고립된 상황에서 중국은 든든한 후원자이자,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
- 북-중 경제관계의 발전은 북한 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이고, 이는 북한의 붕괴를 막고,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음.
- 그러나 북한경제도 우리 민족의 산업이라는 면에서 북한이 지나치게 중국에 의존하게 되는 상황은 남북경제협력의 발전, 나아가 통일 경제를 생각할 때 우려되는 부분임. 일각에서는 북한이 중국의 동북 4성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자조까지 나오고 있으며, 일부 언론³⁾에서

1) 남북교역을 포함할 때에는 39.0%

2) 투자규모의 집계는 언론에서 보도된 계약 또는 합의서 체결 내용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실제 투자 실행과는 무관함(‘중국의 대북 투자 열기, 그 의미는?’ KOTRA 2005.2), 중국대외무역연감과 중국상무연감에 집계된 각년도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대북투자는 2003년 3,526천불, 2004년 8,999천불로 나타나는데, 본 통계는 투자 실행 금액 기준이라는 점에서 투자의 장기적 속성을 고려할 때 북한의 대중 경제 의존도 분석을 위해서는 언론보도 상에 나타난 투자 합의 금액을 집계한 KOTRA의 통계가 더 적절하다고 판단됨.

3) Le Monde지(2005.10.31)

는 이를 “중국이 또 다시 압록강을 건넜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음.

○ 고찰해 볼 문제

- 우선 북-중 경제관계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고찰할 필요가 있음.
- 최근의 북-중 경제 관계를 무역, 투자, 원조로 나누어 살펴보고, 최근의 북-중 경제 관계의 심화 양상을 객관적으로 고찰.
- 최근 북-중 관계의 심화 원인을 살펴으로써, 북-중 경제 관계의 심화가 장기적으로 고착될 것인지, 일시적인 현상인지를 살펴보아야 함.
- 북-중 경제관계의 심화가 북한경제 나아가 한반도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고찰할 필요가 있음.
- 북-중 관계의 향후 전망과 함께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 북-중 경제관계의 심화가 한반도 안정과 우리의 통일 정책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함.

II. 북-중 경제 관계의 역사

■ 1990년대 이전

○ 혈맹, 순치관계

- 1949년 북중 수교 당시 양국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와 항일투쟁의 경험, 지리적 근접성 등으로 인해 혈맹 관계로 출발했으며, 양국 관계는 경제적 측면보다는 정치·군사적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되는 면이 강했음.
- 1990년대 이전까지 양국관계는 중·소 분쟁과 문화대혁명 시기에 일시적으로 소원해진 적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혈맹'의 우의와 '순치관계'를 유지했음.

○ 경제관계가 정치·군사적 관계에 종속⁴⁾

- 전략적 이해관계가 우선되는 조건하에서 양국의 경제관계는 중국의 북한에 대한 일방적 지원의 성격을 띠고 있었음.
- 이러한 불평등한 경제관계는 일반교역에서도 적용되어 중국은 북한에 대해 특혜를 부여해 왔으나 1992년 이후 북-중 교역의 특혜적 성격이 완화됨.

■ 1990년대 전반

○ 혈맹, 순치관계의 균열

- 1990년대 초 구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연쇄적인 붕괴와 시장경제로의 체제 전환이 본격화 되면서 북-중 관계도 점차 변화를 시작.

4) 동북아경제와 북한경제의 발전, 최수영, 통일연구원 2005.10

- 1992년 8월 한-중 수교의 타결로 북-중 관계는 냉각기에 접어들.

- 한-중 수교는 북한외교에 상당한 타격을 주었으며, 이는 그 동안 빈번하게 이루어지던 북-중 양국간 수뇌급 회담의 중단을 비롯하여 양국관계를 크게 악화시킴.

○ 中, 실리주의 정책으로 전환

- 정치관계를 중시 여기던 북-중 관계에 중국은 경제논리를 적용하기 시작
 - 사회주의 우호 가격제, 구상무역 폐지
 - 경화결제 요구

■ 1990년대 후반

○ 양국관계 복원에 노력

- 양국정부는 양국관계의 악화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공유, 특히 경제위기로 북한체제가 붕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양국관계 복원에 노력.
- 중국은 1994년부터 본격적인 대북원조를 재개, 특히 1996년 5월 홍성남 총리가 북경을 방문하였을 때 대북원조 내용을 담은 '경제기술 합작협정'⁵⁾이 체결됨.

○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

- 1999년 6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50여명에 이르는 대규모 사절단이 중국을 방문, 이 때 중국은 북한에 식량 15만 톤, 코크스 40만 톤을 무상 지원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양국관계는 급진전되

5) 향후 5년간 북한에 곡물 50만 톤, 석유 130만 톤, 석탄 250만 톤을 절반은 무상으로, 나머지 절반은 국제가격의 1/3로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었음.

■ 2000년대

○ 긴밀해지는 우호협력 관계

- 고위급 인사의 활발한 교류

- 2000. 3.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평양주재 중국대사관 방문
- 2000. 5. 김정일 국방위원장 북경방문
- 2000. 6. 김일철 인민무력부장 북경 방문
- 2000. 10. 중국 부주석 국방부장 츠하오텐 평양 방문
- 2001. 9. 장쩌민 중국 주석 평양 방문

- 2000년대 초반 양국 최고 지도자를 포함한 고위인사들의 상호방문과 교류를 통해 북-중 우호협력관계는 한층 긴밀해짐.

- 2001 평양 북-중 정상회담 시 장쩌민 주석은 변함없는 ‘중북우의’를 강조했고, 탕지아쉬엔 외교부장은 ‘친척 돌아보기’라는 표현을 썼으며, 김정일 위원장은 장쩌민 주석이 중국 공산당의 활동 목표로 주장한 ‘3개 대표론’(선진생산, 선진문화, 광대한 인민의 이익)을 지지했음.

- 2001 평양 북-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북한에게 식량 20만 톤, 디젤유 3만 톤을 무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통보.

○ 경제 관계의 심화 발전

-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는 2004년 4월 2일 중국을 방문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경제·무역협력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중국 정부는 중국 기업이 북한 측과 다양한 형태의 호혜협력을 행할 것을 적극 장려한다.” 고 천명.

-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북한 무역 총액에서 중국의 비중은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투자 협정 금액도 급증하고 있음.

Ⅲ. 북-중 경제 관계 현황

■ 무역

○ 中, 부동산의 제1교역국

- 2000년 이후 무역액 지속적 증가

· 1990년대 북-중간 무역 규모는 1993년 8억 9,900만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북한의 급격한 대외무역 감소와 함께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함.

· 2000년 김정일 위원장의 방북을 비롯한 양국간 관계개선에 힘입어 교역량이 눈에 띄게 증가하기 시작함. 특히 북한의 대중 수출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음.

(표 1)

북한의 대중 무역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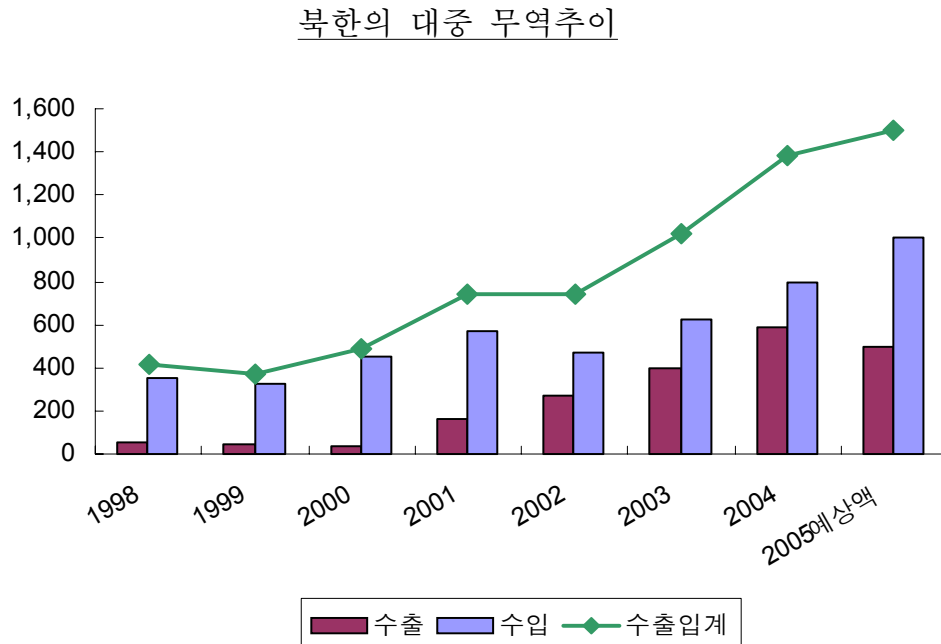
(단위 : 미\$천, %)

구분	수출		수입		무역총액		무역수지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998	57,312	-33.5	355,705	-52.9	413,018	-37.1	-298,392
1999	41,709	-27.2	328,701	-7.6	370,369	-10.3	-286,951
2000	37,214	-10.8	450,803	37.1	488,038	31.8	-413,610
2001	166,739	348.1	573,099	27.1	737,457	51.1	-403,863
2002	270,685	62.3	467,539	-18.4	737,994	0.1	-196,624
2003	395,344	46.0	627,737	34.3	1,022,927	38.6	-232,239
2004	585,703	46.0	799,503	27.4	1,385,206	35.4	-213,800
2005(1~9)	380,026	8.4	808,885	48.6	1,188,911	32.9	-428,8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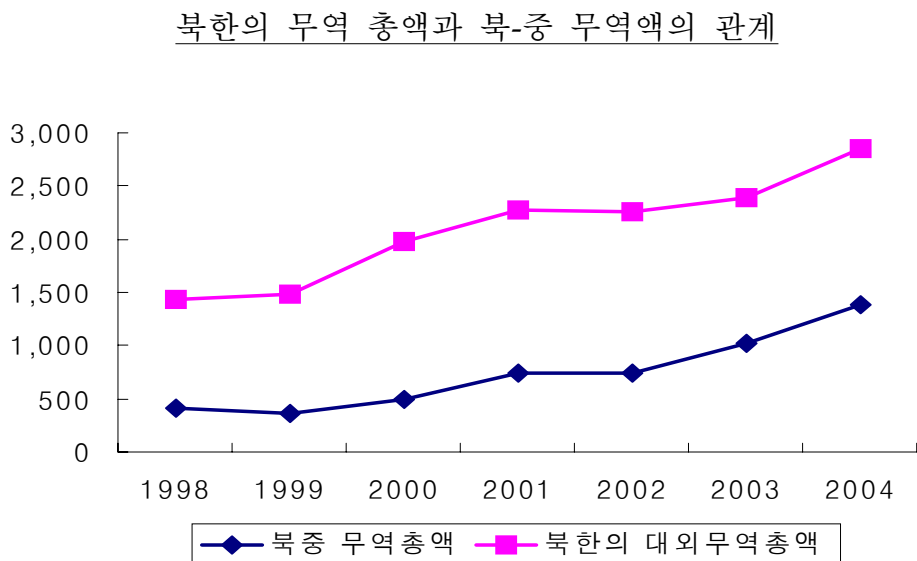
자료원 : 중국해관총서(Customs General Administration PRC)

- 2005년 9월 기준 통계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북한의 대중 수입액이 크게 증가한 것인데, 현재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대중 수입액은 사상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돌파할 것이며, 무역총액은 15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

(그림 1)



(그림 2)



- 최근 북한의 무역규모의 증가는 북-중 교역 증가가 이끌고 있음.

위 그림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북한의 대외 무역 총액의 증가는 북-중 교역의 증가와 정(+)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음.

○ 대중 교역 의존도 심화

- 북한의 무역 총액에서 1990년까지 구소련 및 동유럽 국가들이 북한 전체 교역량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그 이후부터는 중국이 부동의 제1교역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중 교역의 증가가 북한의 교역규모의 증대를 견인하고 있음.

(표 2)

북한의 교역 비중 변화 추이⁶⁾

(단위 : 미\$천,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교역액	점유율	교역액	점유율	교역액	점유율	교역액	점유율	교역액	점유율
중국	488	23.5	737.5	27.6	738.2	25.4	1,022.9	32.8	1,385.2	39.0
한국	425	20.5	403	15.1	641	22.1	724	23.2	697	19.6
일본	463.7	22.3	474.7	17.8	369.5	12.7	265.3	8.5	252.6	7.1
러시아	46.3	2.2	68.3	2.6	80.7	2.8	118.4	3.8	213.4	6.0
태국	207.8	10.0	130.1	4.9	216.6	7.5	254.3	8.2	329.9	9.3
인도	172.2	8.3	157.8	5.9	191.3	6.6	158.4	5.1	135	3.8
기타	274.6	13.2	702.1	25.0	664.1	23.0	572	18.0	541	15.0
총계	2,077.6	100.0	2,673.5	100.0	2,901.4	100.0	3,115.3	100.0	3,554.1	100.0

자료원 : 2004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KOTRA, 2005.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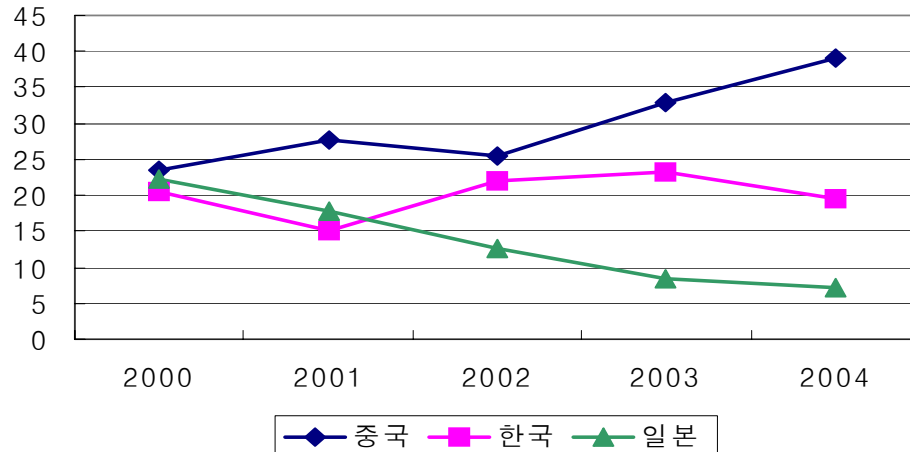
- 특히 2000년 이후, 북한의 대중국 교역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데, 2000년 까지만 하여도 북한의 대외 무역에서 일본과 중국은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5년 사이 그 비중은 6배가량 차이 나게 됨.

6) 남북교역을 포함한 통계임

(그림 3)

북한 교역에서 中·韓·日 비중 추이

(단위 : %)



○ 주요 대중 수출품은 기초 원자재

- 북한은 수산물 및 광물, 철강, 아연, 나무 등 기초 원자재를 주로 수출하고 있음.
- 2005년(1월~9월)의 북한의 대중 수출품 중 광물성연료·광물유(27류),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등(03류), 광·슬랙 및 회(26류), 철강(72류), 아연 및 그 제품(79류), 나무·나무제품·목탄(44류) 등 6개 품목의 수입액이 307,039천불로서 전체 수출액의 80.8%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북한의 대중 수출이 주로 기초 원자재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줌.
- 주요 수출품 중에서 의류/부속품(62류)이 유일하게 제조를 거친 제품으로서 북한 산업 중에서 방직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가늠할 수 있음.
- 어패류(03류)는 북한의 대표적인 수출품으로, 2001년부터 대중국 수출 증가를 이끌었음.

- 전체 대중국 수출액에서 2003년 52.3%, 2004년 44.7%를 차지하고 있음.
- 어패류의 경우 어획량에 따라 수출물량의 변동이 심하고 산업의 파급효과가 적다는 문제점이 있음.⁷⁾

(표 3)

북한의 주요 대중 수출품

(단위 : 미\$천, %)

구분 HS	구분 품명	2001	2002	2003	2004	2005(1-9)	증감률
27	광물성연료	4,318	11,295	17,250	53,100	82,550	125.3
03	어패류	47,977	143,016	206,931	261,806	82,452	-42.8
26	광,슬랙 및 회	6,434	8,537	14,963	60,114	66,255	89.6
72	철강	23,670	27,860	46,794	75,925	54,419	-5.4
62	의류/부속품 (편직물외)	26,773	38,261	52,237	50,850	41,387	35.0
79	아연과 그 제품	168	354	13,523	34,604	10,780	6.9
44	목재	4,640	9,303	13,624	15,175	10,583	-16.2
12	채유용 종자	22,490	10,025	7,781	6,761	4,580	20.5
61	편직물	66	2,842	2,200	2,000	3,988	51.7
08	과실류	3,828	855	4,437	4,785	3,534	25.4

자료원 : 중국해관총서(Customs General Administration PRC)

주) 증감률은 2004(1~9)대비 2005(1~9)의 증감률

- 2004년부터 눈에 띄는 대중 수출품은 광물성연료(27류)로서, 전년동기대비 각각 2004년 207.8%, 2005년 9월까지 125.3% 증가하였음. 북한의 대중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음.
- 그 원인은 유가급등에 따른 중국 내 대체 에너지 수요와 중국의 에너지 부족 현상에 힘입은 것이지만 이외에도 1990년대 중후반 수해를 입었던 북한의 탄광이 생산 정상화 과정에 접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지역별로는 산둥성이 북한산 무연탄을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으며,

7) 북한과 중국의 경제관계 현황과 전망, 조명철, KIEP세계경제 2005.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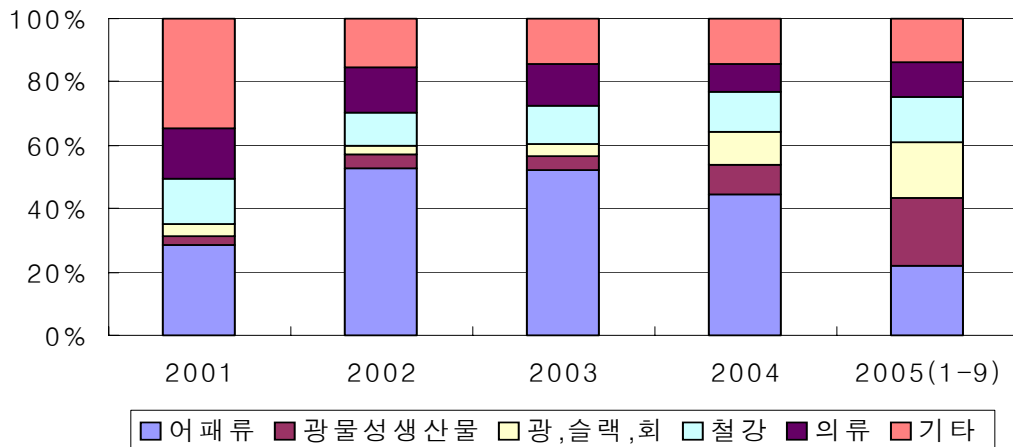
요녕성, 절강성, 강소성 등이 뒤를 잇고 있음.

- 올해 들어 지하자원(26,27,72류)의 대중 수출이 급증하면서 대중 수출품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지난해부터 중국의 대북 지하자원에 대한 투자가 본격화됨에 따라 북한의 지하자원의 대중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됨.

(그림 4)

북한의 대중 수출품별 비중

(단위 : %)



○ 주요 대중 수입품은 식량과 생산요소

- 대중 수입품은 주로 곡물, 식용육류 등 주민생활에 필요한 식량과 전기기기, 플라스틱 제품 등 생필품들, 그리고 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료, 기계, 철강 등에 집중.
- 2005년(1월~9월) 대중 수입액은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기록한 가운데 광물성연료·광물유(27류), 식용육류(02류), 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84류), 곡물(10류), 전기기기·음향·영상설비 및 부품품(85류), 플라스틱 및 그 제품(39류), 철강(72류), 차량 및 그 부품(87류) 등 8개 종목의 수출액이 528,885천불로서 전체 수출액의 65.4%를 차지했음.

- 북한의 산업 생산에 절실히 필요한 주요 품목은 거의 대부분 중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는데, 특히 에너지, 화학제품, 철강, 기계 등의 품목은 중국이 제1의 공급국임.

(표 4)

북한의 주요 대중 수입품

(단위 : 미\$천. %)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1-9)	증감률
HS	품명						
27	광물성생산물	161,800	117,969	180,727	204,657	208,029	79.0
02	식용육류	6,701	10,372	63,623	140,576	98,877	-14.5
84	기계류	23,139	26,439	27,044	39,924	52,645	98.0
10	곡물	62,611	29,910	49,961	15,389	47,219	256.5
85	전기기기	23,410	27,482	38,581	46,051	36,956	19.8
39	플라스틱	23,312	25,133	24,578	32,434	35,300	71.4
72	철강	22,133	20,781	20,688	39,715	29,056	-7.1
87	차량	18,681	7,947	8,640	18,655	20,803	64.9
54	인조필라멘트섬유	6,131	9,723	14,590	18,324	18,922	60.4
73	강철제품	10,194	8,300	6,874	14,478	17,453	79.3

자료원 : 중국해관총서(Customs General Administration PRC)

- 비산유국인 북한이 필요로 하는 원유 및 에너지의 대부분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음.
- 북핵문제로 KEDO의 중유 지원 등 국제적 지원이 중단되면서 북한은 에너지 조달을 거의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임.
- 원유 조달에 있어 중국산은 절대적인데, 2004년 북한은 해외 원유 도입량 중 86.8%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해마다 중국으로부터의 원유도입액이 증가하고 있음. (금액기준 전년동기대비 2004년 15.1%, 2005(1월~9월) 105.6% 증가)
- 최근 들어 기계류(84류)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대

북투자의 증가에 따라 생산설비 등이 대량 도입된 결과로 풀이됨.

(표 5)

북한의 원유도입 실적

(단위 : 만톤)

구 분	91년	92년	93년	94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중 국	110	110	105	83	102	93.6	50.6	50.3	31.7*	38.9	57.9	47.2	57.4	53.2
태 국	-	-	-	-	-	-	-	-	-	-	-	-	-	8.1
리비아	-	20	10	8	8	-	-	5.3	-	-	-	-	-	-
예 멘	-	-	-	-	-	-	60	-	-	-	-	-	-	-
이 란	75	22	21	-	-	-	-	-	-	-	-	-	-	-
러시아	4	-	-	-	-	-	-	-	-	-	-	12.5	-	-
시리아	-	-	-	-	-	-	-	5.3	-	-	-	-	-	-
합 계	189	152	136	91	110	93.6	110.6	60.9	31.7	38.9	57.9	59.7	57.4	61.3

자료원 : 2004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 KOTRA 2005. 5

주) '98년도 무상원조분 8만톤 중 잔여분인 20,527톤 포함

- 무역방식별 대중수출입 통계에서 가공무역(50.7% ↑)과 대외청부공사수출화물(347.1% ↑) 방식이 크게 증가하였음. 중국의 대북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대북 투자의 주요 패턴 중 하나인 가공무역이 활성화됐으며, 향후 대북 투자가 심화됨에 따라 가공무역 방식의 교역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대외청부공사수출화물의 경우에도 금년 대북 투자 증가에 따른 공사 프로젝트가 증가함에 따라 급속한 성장세를 기록했음.
-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으로서, 해외로부터의 식량 도입은 필수적인데, 식량 부족분의 대부분도 중국으로부터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곡물(10류)의 경우 2004년 중국의 곡물가 상승으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줄이고 인도, 태국 등으로 수입선을 전환하였으나, 2005년 들어 중국의 곡물가가 하락함에 따라 다시 중국으로부터의 곡물

도입은 크게 증가하고 있음.

(표 6)

북한의 대중국 곡물 도입 실적

(단위 : 만톤, %)

구 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1~9)	증감률
중 국	28.8	23.8	28.3	43.6	21.9	34.9	9.0 ⁹⁾	31.3 ¹⁰⁾	295.5

자료원 : 중국해관총서(Customs General Administration PRC)

주) 증감률은 2005(1~9)의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중국으로부터의 식용육류(02류) 수입도 최근 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올해 초 발생한 조류독감의 영향으로 가금류를 이용한 조리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그 증가세가 더 커지고 있음.¹¹⁾

- 전기기기(85류)의 대중 수입도 크게 증가하고 있음.

- 북한 주민들이 선호하는 '5장6기'(이불장, 양복장, 책장, 식장, 신발장과 텔레비전, 냉장고, 녹음기, 세탁기, 재봉기) 가운데 80% 이상이 중국산인 것으로 나타남.¹²⁾

- 대중 컬러 TV 수입은 2002년 7만대, 2003년 17만 5,000대, 2004년 21만대로 증가.¹³⁾

○ 만성적인 대중 무역적자

8) 지난 해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세를 주도한 곡물 가격은 올 해 들어 4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음.(KOTRA 지역별 정보(중국), 2005. 8. 22)

9) 2004 북한의 대외무역동향(KOTRA, 2005. 5) p25의 2004년 북한의 대중 곡물 도입량의 오류를 수정함.(20.6 → 9.0)

10) 곡물도입량의 대부분은 무상원조가 아닌 일반무역의 형식으로 중국으로부터 수입(KOTRA 북경무역관)

11) 중국농업망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심양 綠豐食品有限公司로부터 냉동소고기 48톤을 수입했고, 향후 100톤의 냉동소고기를 추가 수입하기로 하였음. 또한, 중국단둥항도망의 보도에 의하면, 북한은 가금류의 판매금지 조치 외 조류독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폐지도 도살을 금지했으며, 금강산뿐만 아니라 북한전역의 음식점에서 닭, 오리 등 가금류 조리를 금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KOTRA 북한 경제 속보 2005. 5. 12)

12) '경제혈맹'? 중국자본, 북한점령 가속화, 남성욱, 신동아, 2005.12

13) 상동

- 북한은 중국과의 교역에서 해마다 2~4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음.
- 이는 북한이 중국으로부터는 주로 수입을 하는 반면 수출은 일본, 남한 등에 하기 때문으로 풀이됨.¹⁴⁾ 즉, 북한의 산업구조가 중국의 원자재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지만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보상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님.¹⁵⁾
- 지난해부터 중국의 대북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중국으로부터 생산 설비의 도입이 늘어나 2005년 북한의 대중 무역적자폭은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임.

○ 북-중 교역, 대부분 동북3성을 통해

- 북-중 교역은 주로 동북3성(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에 집중되어 있음.
- 2005(1~9) 통계를 보면, 동북3성(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의 대북 수출액은 517,223천불로서 전체 수출액의 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액은 270,302천불로서 전체 수입액의 71%를 차지하고 있음.
-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 신의주-단둥 경로가 북-중간 교역의 약 80%가량을 처리하고 있음.
- 2005(1월~9월) 북-중간 교역에서 변경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수출 23%, 수입 33%를 기록했으므로 동북3성의 대북 교역은 변경무역 이외에도 일반무역 및 기타무역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수출 41%, 수입 38%에 이르고 있음. 따라서 동북3성을 통한 북-중 무역은 단순히 보따리 무역 수준이라기보다는 양국을 연결하는 전면적인 무역 창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14) 북한경제 발전전략의 모색, 조동호 외, 한국개발원, 2002

15) 동북아경제와 북한경제의 발전 방향, 최수영, 통일연구원, 2005. 10

(표 7)

북한의 중국 지역별 수출입 실적

(단위: 미\$천, %)

구분	수입2005(1-9)		수출2005(1-9)	
지역명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요녕성	222,826	27.5%	193,604	50.9%
흑룡강성	183,558	22.7%	5,949	1.6%
길림성	110,839	13.7%	70,749	18.6%
산둥성	57,109	7.1%	36,281	9.5%
사천성	52,259	6.5%	0	0.0%
하남성	33,946	4.2%	7	0.0%
강소성	32,993	4.1%	35,895	9.4%
하북성	25,114	3.1%	3,684	1.0%
절강성	16,772	2.1%	10,837	2.9%
기타	146,911	18.2%	45,988	12.1%
합계	808,885	100.0%	380,026	100.0%

자료원 : 중국해관총서(Customs General Administration PRC)

· 북한당국의 대외무역 허가를 받은 130여개의 무역회사 가운데 100여개 업체가 단둥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있으며, 중국정부로부터 변경무역의 허가권을 받은 무역회사 126개가 단둥에 있음.

- 동북3성을 제외하고는 산둥성, 강소성, 사천성 등과의 교역액이 큼. 특히 산둥성은 동북3성 다음으로 대북 교역이 활발한 지역으로서 대북 투자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북한 화교의 90%가 산둥성 출신인 점과 무관하지 않음.

■ 투자

○ 2002년부터 급증하고 있는 중국의 대북 투자

- 1984년 북한이 '합영법'을 제정한 이래 등장하기 시작한 중국의 대북 투자는 1995년까지 불과 3건에 불과했음. 1999년 말까지 중국의 대외무역경제협력부에서 공식적으로 비준한 중국의 대북한 투자기업은 식당, 상점, 수산양식업 등 6개사이며, 투자 누계액도 188만 달러에 불과했음.

(표 8)

연도별 중국의 대북 투자현황¹⁶⁾

(단위: 개사, 미\$천, %)

연도	기업수	투자액	점유율
1990년 이전	2	790	4.2
1991	1	47.8	0.3
1992	0	0	0
1993	0	0	0
1994	1	270	1.5
1995	0	0	0
1996	0	0	0
1997	0	0	0
1998	1	160	0.9
1999	1	610	3.3
2000	0	0	0
2001	2	2,600	14.0
2002	4	1,503	8.1
2003	5	3,526	19.1
2004	8	8,998.8	48.6
합계	25	18,505.6	100

자료원 : 중국대외경제무역연감, 중국상무연감 각년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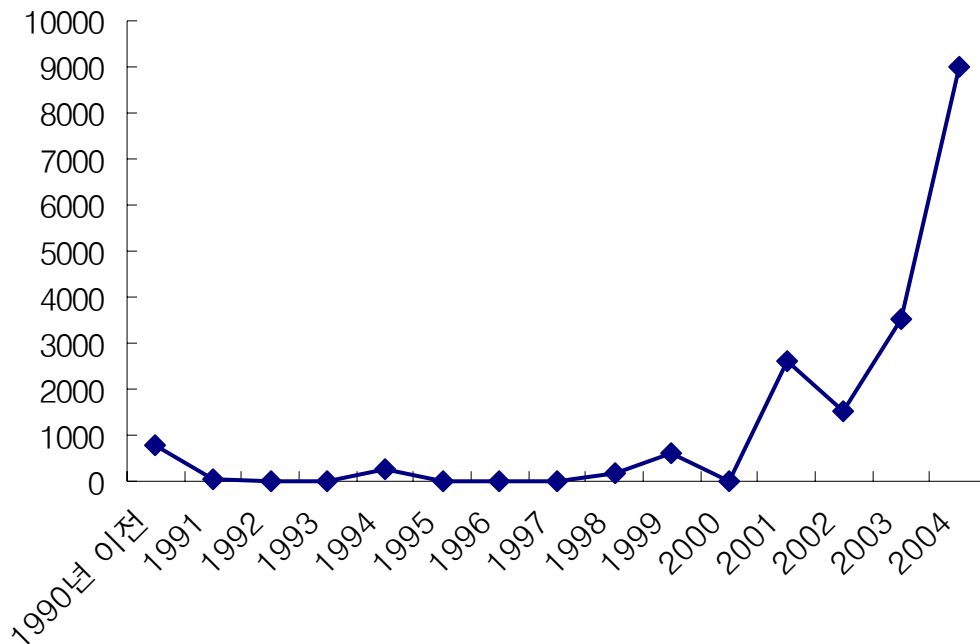
- 중국의 대북 투자는 2002년을 기점으로 투자금액, 투자추세 면에서 큰 변화를 나타내고 있음. 북한의 경제관리 및 대외개방에 대한 변화가 본격화된 2002년 7·1 조치 이전에 실현된 중국의 대북 투자는 대부분 소규모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2001년을 제외하고는 투자금액도 미미했음. 대표적인 사례로 연변현통집단의 라진·청진항 컨테이너 설비 및 항만 확장공사 공사를 들 수 있으며, 이밖에는 대부분 식당 등에 소규모 투자가 전부였음. 그러나 2002년 7·1조치 이후 기업의 독립채산제가 확립되고 비즈니스 관행이 정착되기 시작하면서 대북 투자는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2년 4개사 1,503천불, 2003년 5개사 3,526천불, 2004년 8개사 8,998천불을 기록했으며, 특히 2004년 투자액이 전체 누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8.6%에 달하여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

16) 본 통계는 중국 상무부 신고 기준이기 때문에 신고를 거치지 않은 투자 금액까지 합하면 투자액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됨. 대북 사업을 추진하는 인사에 따르면, 2004년도 중국의 대북한 투자는 5,000만불에 달하며, 북한 전체 투자액의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함. (KOTRA 베이징 무역관) 또한 본 통계는 실행액 기준인바, 현재 중국의 대북 투자 급증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투자 협정액을 살펴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됨.

(그림 5)

중국의 연도별 대북 투자 실행액

(단위 : 미\$천)



○ 지난해부터 중국자본의 북한 진출 본격화

- 중국 정부의 대북 투자 육성

- 원자바오 총리는 2004년 4월 중국을 방문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게 “중국정부는 중국 기업이 북한측과 다양한 형태의 호혜협력을
행한 것을 적극 장려한다.”고 천명.
- 2004년 2월 중국은 대북 투자 자문 회사인 “북경화려경제문화교류
유한공사¹⁷⁾”를 설립하여 정부차원에서 대북진출을 총괄.
- 2004년 중국 흑룡강성, 사천성, 복건성 등 여러 성에서 ‘대북투자
설명회’가 개최됨. 2004년 11월 요녕성 심양시 기업가 협회에서 주
최한 ‘대북투자설명회’에는 중국 기업인 500여 명이 참가해 성황을

17) 민관영을 통틀어 북한이 유일하게 자문권한을 인정한 회사임. 형식상 민간기업이지만 실질적으로 중국정부를
대행. ‘경제혈맹’?, 중국자본, 북한 점령 가속화, 남성욱, 신동아 2005. 12

이름.

- 2005년 10월 북한 노동당 창건 60주년을 맞아 방북한 중국 국무원 우이 부총리는 광산개발, 제철공업, 항구개발 등 3대 중공업 분야에서 기존의 북한 중공업 단지와 함경북도 일원에 개발 원조를 해주기로 합의.

- 2005년 10월 북한을 방문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김정일 위원장과 중국이 무상 지원으로 건설한 대안천선유리공장을 참관한 뒤 김영남 위원장과 회담했으며, 이 자리에서 후주석은 중국과 북한의 경제무역 관계 발전이 매우 빠르고 잠재력도 크다며 상호 이익 및 공동 발전 원칙에 입각해 양측 기업들이 여러 형식의 합작 투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천명.

- 북한도 중국기업의 대북투자 유치에 적극적

- 2005년 2월 북경에서 ‘조선투자환경설명회’를 개최하여, 조선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김영민 부위원장이 참석하였는데, 300여 중국기업가가 참석한 이 자리에서 집행국 김정빈 국장이 조선의 투자환경, 절차 및 특혜정책과 20개의 대외유치중점 프로젝트를 발표.
- 2005년 1월 북한은 첸하오민 홍콩국제산업발전유한공사 이사장을 북한 정부의 외자 유치 대표로 공식 임명.
- 2005년 3월 북한 박봉주 총리는 중국 방문 기간 중에 ‘투자촉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과 ‘환경협조에 관한 협정’을 체결, 투자자산을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큰 틀을 확보, 광산과 유통, 제조업 등 각종 대북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대북 투자 증가의 촉매 역할을 하게 되었음.

○ 중국자본, 대북 투자 외국자본의 상당 부분을 차지

- 현재 북한의 외자 유치액 중 중국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음. 이는 북한의 전체 외자유치 규모를 알 수 없기 때문.¹⁸⁾

- 북한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김영민 부위원장은 2005년 2월 베이징에서 열린 투자사업설명회에서 “2004년 말 현재 북한에 진출한 외국 기업은 300개이며, 그 중 40%인 120개가 중국 기업”이라고 밝혔음.
- 또한 대북 사업을 추진하는 인사에 따르면, 2004년도 중국의 대북한 투자는 5,000만 불에 달하며, 외국의 대북 전체 투자액의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함.¹⁹⁾

○ 대북투자, 동북3성과 남방계 기업들이 주도

- 현재 북한에 투자한 중국기업 중 항주의 와하하집단, 하남일타집단, 산둥성 초금집단, 길림성방직수출입공사 등 비교적 큰 기업들이 동북3성과 남방에 집중되어 있음.
- 동북3성 기업의 대북한 투자는 북한과 지리적으로 인접된 위치에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남방기업들의 북한진출은 중국기업들의 글로벌화로 해석될 수 있음.²⁰⁾

○ 자원 개발 투자에 집중, 타 영역으로 투자 확대 중

- 투자분야 중 지하자원 개발이 가장 활발
 - 2005년 10월 길림성의 통화철강그룹, 옌벤첸츠철강그룹, 중강그룹 3개 기업이 향후 50년간의 무산광산²¹⁾ 개발권을 따내는 계약을 북측과 체결. 총 투자 금액 70억 위안(약 9억 US\$) 가운데 50억 위안은 광산개발에 투자하고 20억 위안은 길림성 통화에서 무산을 잇

18) KOTRA는 2006년 상반기 중 북한의 외자유치 현황을 조사하여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임.

19) KOTRA 베이징 무역관

20) 중국기업의 대북한 투자에 관하여, 임금숙, 통일정책연구, 14권 1호

21) 무산광산은 아시아에서도 큰 철광생산지로서 12억 톤 이상의 철광석이 매장되어 있는 북한에서 가장 큰 철광산임.

는 철도, 도로 등 수송시설 건설에 사용할 계획이며, 매년 1000만 톤의 철광석을 채굴할 것으로 알려짐.²²⁾

- 평안북도에 위치한 용등탄광²³⁾과 중국 비철금속 관련 대기업인 오광집단(五礦集團)이 석탄시굴 관련 합자회사를 설립기로 합의. 2005년 9월 우이(吳儀) 중국 부총리의 북한 방문 시 동행한 중국 五礦集團 총재가 림경만 북한 무역상과 만나 합자기업 설립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 이는 북한이 처음으로 자국 탄광을 외국자본에 개방한 것임.

- 이 외에도 량강도 해산동광 개발, 북한 산농산 금광개발 사업 등이 진행 중.

- ‘세계의 공장’이 된 중국은 각종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지리적 이점이 있고, 품질이 좋은 북한 지하자원 확보에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 어업자원과 목재에도 투자

- 북한 상명무역총회사와 중국 베이징종합화학무역공사는 원산 앞바다를 중국어선에 5년간 개방하고, 입어로 명목으로 어획고의 25%를 전자제품 등 현물로 받는 공동협력계약을 체결.²⁴⁾

- 투자 분야 확대 중

- 북한 산업 인프라 건설에도 투자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라진항의 50년간 독점 사용 사업임. 라선시 인민위원회가 중국의 훈춘시 동린 무역공사 및 훈춘국경경제협력지구보세공사와 50대 50으로 자본금을 출자해 라선국제물류합영공사를 설립, 중국 측은 라진항을 5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는 대신 북한 내 도로 건설, 관광 시설 및 공업단지 조성 등에 투자하기로 합의.²⁵⁾

22) 동아경무신문(东亚经贸新闻) (2005. 11. 1), 홍콩 대공보(2005. 11. 2)

23) 용등탄광은 한때 연간 생산량이 300만톤에 달한 북한 최대규모의 무연탄 탄광으로, 현재는 연간 100만톤의 석탄을 생산하고 있음.

24) 연합뉴스, 2004. 9. 7

- 이 외에도 컴퓨터, 자전거, 트랙터, 유리 등의 제조업 분야에도 투자 중이며, 중위 그룹의 평양 제1백화점 투자와 같이 서비스 분야에도 투자하고 있음.

- 보상무역과 합작투자 형태 위주

- 중국기업의 대부분의 대북 투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기업경영에 참여하는 진정한 의미의 투자라기보다는 주로 보상무역의 형태를 띠고 있음. 앞서 설명한 무산광산 철광석 채굴권 취득도 광산개발, 도로건설 등의 보상 무역형태를 취하고 있음.
- 중국 측과 북한 측이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형태도 많이 눈에 띄는데, 최근 중국의 천진디지털무역유한책임공사와 조선대외경제합작촉진위원회가 설립한 평진 자전거 합영공장, 산둥성 초금집단과 양강도 '혜산청년동광'간의 합작 등이 대표적인 예.
- 보상무역형태는 투자한 설비만큼 생산제품으로 보상받기에 투자 리스크가 낮고 산출 주기가 짧으며 상호계산이 간편하기 때문에 서로 신용만 잘 지킨다면 현재 중국의 대북투자에서 알맞은 형태로 보임.²⁶⁾

(표 9)

중국의 대북한 투자의 대표적 사례

연번	투자분야	투자규모	협정(보도)시기	비고
1	발전소	2억불	2000년 4월 香港商報	중국의 광둥화하환보생태과학유한공사(廣東華夏環保生態科學有限公司), 북한의 조선경제개발총공사가 '환경보호 및 생태자원 이용 협약서'를 체결, 협약에 따라 나선에 발전소 건설 추진
2	페인트	미상	2000년 7월	천진등탑도료고빈유한공사(天津燈塔塗料股份有限公司), 북한의 평양지성명심합

25) 연합뉴스, 2004. 10. 12

26) 중국기업의 대북한 투자에 관하여, 임금숙, 통일정책연구, 14권 1호

			KOTRA	자회사(平壤至誠明心合作會社)가 평양에 합작 페인트공장을 설립하기로 합작조 인식 개최
3	광천수 생산	494만불	2000년 12월 KOTRA	중국측(우림경제무역유한공사), 북한측 (조선 두만강무역회사)이 각각 49:51의 비율로 북중 합영회사인 "칠보산 합영회 사" 설립
4	담배	150만불	2002년 3월 금수강산	중국 길림성 연길담배공장 단독으로 라 선신흥담배회사 설립
5	컴퓨터	130만불	2002년 6월 신화일보	남경팬더전자집단유한공사(南京熊貓電子 集團有限公司), 대동강계산기합영회사가 합자,아침-팬더(晨曦熊貓計算機有限公司) 컴퓨터 합영회사 설립
6	슬레이트	미상	2003년 11월 연합뉴스	지린성방직수출입공사 및 창춘영초과학 주식유한회사 공동, 투자 규모 및 위치 미상.
7	유리공장	2,400만불	2004년 3월 연합뉴스	2004년 2차 6자회담 관련 중국의 대북 원조 성격, 평남 대안군에 중국의 요화 유리집단공사(耀華玻璃集團公司)가 건설
8	트랙터	미상	2004년 7월 koreancc.com	중국 하남일타집단(河南一拖集團), 조선 금성트랙터 공장간 시행계약 체결
9	백화점운영	5,000만 위안 (약600만불)	2004년 8월 KOTRA 보도	선양 중취그룹(Zhongxu jituan, 中旭集 團) 및 평양 제1백화점. 수입관세 5%, 소득세 5% 만 부과하는 특혜
10	황금채굴 및 제련	미상	2004년 9월 제남일보	초원산동국대황금고빈유한공사(招遠山東 國大黃金股份有限公司), 조선대경추 MOU 체결, 북한의 산농산 금광개발 관 련 합작 투자 논의
11	담배,의류, 무역	2,000만불	2004년 11월 中新吉林新聞網	지린성 상무청 관계자가 성내 대북 투 자기업 9개사가 총 2천만불을 북한에 투자했다고 언급
12	운송	7억위엔 (8500만불)	2004년 11월 연합뉴스	온주낙청성금쾌속기차복무유한공사(溫州 樂清盛金快速汽車服務有限公司), 북한의 조선울림운수합영회사 합작
13	동광개발	2.2억위엔	2005년 1월	중국 길림성 장백현(長白縣), 산둥성 초

		(2680만불)	연합뉴스	금집단(招金集團)이 공동으로 장백초금광업주식유한회사(長白招金鑛業株式有限會社)설립, 량강도 혜산 동광 개발
14	소비재	미상	2005년 3월 연합뉴스	중국의 지린식용유수출입회사, 북한의 평양담배종이제조공장이 합작 공장을 설립, 여성용 생리대(브랜드명: 검은꼬리 고지새) 생산
15	항구개발	800억원	2005년 9월 경제참고보, 국제선구도보 등	라선시 인민위원회가 중국의 훈춘시 둥린무역공사 및 훈춘국경경제협력지구보세공사와 50대 50으로 자본금을 출자해 라선국제물류합영공사를 설립, 중국 측은 라진항을 5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는 대신 북한 내 도로 건설, 관광 시설 및 공업단지 조성 등에 투자하기로 합의.
16	자전거	65만불	2005년 10월 조업시작	중국 천진디지털무역유한책임공사와 조선대외경제합작촉진위원회가 51:49 투자, 평진자전거합영공장 설립, 양측은 20년간 공동으로 회사를 경영하고 관리할 것을 약정
17	탄광개발	미상	2005년 10월 길림신문	중국 오광집단(五鑛集團)은 북한 립경만 무역상과 합자기업 설립 협약서에 서명하고 평북 용등탄광을 개발하기로 합의

■ 원조

○ 금액상으로 미미

- 무역방식별 북한의 대중 수입 실적을 살펴보면, 일반무역과 변경무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무상원조는 전체 수입 금액에서 1~5%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미미한 수준임.
- 2004년 한국의 대북 무상원조는 2억 5,520만 달러로, 중국의 대북 무상원조는 한국의 5.7%에 불과한 수준임.

(표 10)

북한의 무역방식별 대중 수입 실적

(단위 : 미\$천, %)

구분	2003		2004		2005(1-9)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일반무역	431,269	68.7	566,243	70.8	513,960	63.5
변경무역	114,657	18.3	143,656	18	185,166	22.9
가공무역	44,892	7.2	35,165	4.4	31,348	3.9
보세수출입	20,439	3.3	20,844	2.6	26,871	3.3
무상원조	10,888	1.7	14,556	1.7	33,759	4.2
기타	5,438	0.9	19,032	1.8	17,783	2.2
합 계	627,583	100.0	799,503	100.0	808,885	100.0

자료원 : 중국해관총서(Customs General Administration PRC)

○ 불규칙적으로 증감을 반복

- 중국의 대북 무상원조는 1994년, 1996년, 2001년, 2005년에 대폭 증가했으나, 전체적으로는 불규칙적으로 증감이 반복되면서 일정한 추세치를 보이지 않고 있음. 그 이유는 무상원조가 대부분 양국 고위급이 참석하는 외교행사 때 정치적 결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 예1) 2001년 9월 장쩌민 주석이 북한을 방문, 식량 20만 톤과 디젤유 3만 톤을 북한에 지원
- 예2) 2005년 10월 후진타오 주석이 북한을 방문, 20억 달러 상당의 경제적 지원을 약속

(표 11)

연도별 중국의 대북 무상원조 실적

(단위: 천불, %)

연도	금액	증감율
1993	664	-
1994	6,175	829.9

1995	6,093	-1.3
1996	40,135	558.7
1997	34,414	-14.3
1998	32,047	-6.8
1999	48,364	50.9
2000	27,564	-43.0
2001	69,129	150.8
2002	15,968	-76.9
2003	10,888	-31.8
2004	14,556	33.7
2005(1-9)	33,759	197.7

자료원 : 중국해관총서(Customs General Administration PRC)

IV. 북-중 경제관계 심화의 배경

■ 정치적 배경

○ 中, 자국의 전략적 이익의 극대화

- 이념보다는 국가이익(National Interest) 극대화 전략에 따른 선택

· 중국은 16全大會를 통해 제4세대 중심의 후진타오 체제로 개편됨에 따라 마오쩌둥 유산으로부터 자유로와짐으로써 마오쩌둥 이래 근본적 조정이 어려웠던 한반도 정책을 그들이 추구하는 새로운 이익 개념에 적응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되었음.

· 후진타오는 마오쩌둥 유산의 중요 내용을 형성해 왔던 북-중 관계의 특수관계(혁명과 이념적 연대성)의 근본적 청산을 통해 국가이익과 상호주의에 기초한 정상적 관계로 변화를 추구함.

· 따라서 현재 중국이 북한에 대해 경제관계를 긴밀히 하고 있는 정치적 배경은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 현재 중국이 한반도에 대해 가지고 있는 국가이익은 한반도 정세의 현상유지(Status quo)로 압축 될 수 있는데,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1)북한체제 붕괴의 방지, 2) 북한에 대한 일정 영향력 확보 3) 북한과 중국의 사회적 이질화 방지 등을 들 수 있음.

- 북한체제 붕괴의 방지

·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면 중국은 완충지대를 잃게 되어, 체제 유지에 위협을 받을 수 있음. 중국이 사회주의체제를 포기하지 않는 한, 북한이 시장경제체제로 완전 편입되거나 한반도가 자본주의체제하에 통일이 되는 상황은 중국의 정책 목표에 부합되지 않음.

· 중국은 그들의 韜光養晦 외교전략에 따라 세계질서에 중요한 영향

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과 조건을 구비하고, 특히 한반도 통합 과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때까지 한반도의 분단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려 할 것임. 만약 북한 붕괴 과정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한다면 강대국들의 개입을 불러올 것이고, 특히 일본에게 재무장의 구실을 줌으로써 중국에게 위협이 될 수 있음.

- 중국이 지속적으로 고속 성장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정치적 안정이 필요함.

- 또한 중국은 북한의 붕괴로 동북3성으로 북한 난민 수만 명이 돌입하는 사태를 회피하고자 함.

- 북한에 대한 일정 영향력 확보

- 북한을 계속 중국의 세력권내 두거나, 북한이 다른 국가의 배타적인 영향권 내에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북한이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중국에게 더욱 의존하게 만들어, 중국만이 북한의 모험주의를 조정할 수 있는 카드를 확보, 국제적 영향을 확대하려 함.²⁷⁾

- 중국은 북한 산업화 과정에 적극 진출, 북한과 중국 동북경제구와의 횡적연계를 강화, 상호보완·상호의존적인 관계를 심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하여, 앞으로 전개될 한반도 내의 경제적 통합과정에서 중국이 일정한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려고 함.

- 중-북 급격한 사회적 이질화 방지²⁸⁾

-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중국경제체제의 시장경제로의 이행은 빠르게 진행되어 가고 있음.

- 북한이 기존의 스탈린식 통제경제체제를 계속 유지해 나간다면, 양국간에 나타나는 체제상의 이질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며, 심각한 갈등관계를 표출시킬 수도 있음.

27) 북-중 관계 발전과 우리의 정책방향, 유경렬, 주요국제문제분석, 외교안보연구원, 2001. 11. 2

28) 후진타오 체제하의 중-북한 관계, 박두복, 외교안보연구원, 2004. 11

○ 北, 국제적 고립에 따른 선택

- 북핵문제로 미국과 일본 등이 경제제재를 가하고 있어, 중국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
- 미국이 대량무기확산방지구상(PSI)을 강화하는 바람에 돈줄이던 무기수출과 마약밀매가 막혔음.
- 일본은 일본인 납치 문제와 핵문제 등을 이유로 북한선박에 대한 입항조건 강화²⁹⁾, 대북수입에 대한 검사를 강화 하고 있음.³⁰⁾
- 북-중간 우호관계의 역사도 일조
- 현재의 북-중 경제관계의 심화를 단지 북한의 국제적 고립으로만 설명하기에는 역부족. 왜 다른 나라가 아닌 중국과의 관계가 유독 심화되고 있는냐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북-중간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고려해야 함.
- 한국전쟁 이후 북-중간 이루어진 혈맹관계의 역사와 동일한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경험들로 중국 투자자들은 정치적 불안, 북한 경제체제의 특수성 등의 불안요소에 대한 부담을 작게 느끼고 있음.³¹⁾
- 또한 북한정부와 기업체들도 동일한 민족인 한국보다 중국과의 거래에서 갈등이 더 적음. 이는 대북한 투자과정에서 중국기업들에게 유리한 요인으로 작용함.³²⁾

29) 2004년 2월 외국환법의 개정, 6월 특정선박 입항금지법의 성립. 일본경제신문에 따르면 일본이 북한 선박에 대한 입항 검사를 강화한 이후 일본으로 입항하는 북한 선박의 수가 전년보다 약 30% 가까이 감소하였다고 일본 해상보안청 간부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KOTRA 북한경제정보,

30) 북한의 대일 주요 수출품은 조개인데, 2005년 1월 일본 농림규격(JAS)법이 개정되어 수입 바지락 조개의 원산지 표시가 강화되어 북한의 조개 수출에 악영향을 끼쳤으며, 종전까지 샘플 검사만 하던 것을 전량 검사를 의무화하여 마이즈루항에 5명, 사타이미나도항에 7명의 세관 직원을 증원하여 엄격한 검사를 하고 있음. (KOTRA 도쿄무역관 보고)

31) 중국의 對北투자 熱氣, 그 의미는?, KOTRA, 2004.2

32) 중국기업의 대북한 투자에 관하여, 임금숙, 통일정책연구 14권 1호

■ 경제적 배경

○ 中, 경제 성장과정에서 북한을 이용

- '세계의 공장'인 중국 경제의 급성장에 따라 직면하게 된 원자재 난³³⁾ 타개를 위해에 북한을 이용.
- 북한의 주요 자원의 잠재 가치는 약 2,287조 5,000억원으로 추정되며, 북한에 있는 200여종의 광물 중 43종은 경제성이 있음. 특히 텅스텐과 마그네사이트 등 주요 유용광물의 매장량 규모가 각각 세계 1위, 4위에 이를 만큼 개발 여력이 풍부함.³⁴⁾
- 중국은 주요 원자재의 공급 부족에 직면, 해외 조달에 눈을 돌리던 중 거리적 이점이 있고, 품질이 우수한 북한산에 관심을 나타냄.³⁵⁾
- 현재 중국의 광산채굴과 제련설비 및 기술도 일정한 수준에 이르렀는바 해외투자를 통하여 자원부족을 완화함과 동시에 기계 설비의 시장관로를 넓히는 것도 대북한 투자 증가의 배경이 되고 있음.³⁶⁾
- 중국 정부의 국가전략의 하나인 투자진출정책(走出去,저우추취) 기조와 무관하지 않음.
- 사실 저우추취 정책은 선진기술의 확보 및 자국기업의 글로벌 기업으로의 육성이 주요 목적으로서 경제적으로 낙후한 북한에 대한 투자를 선진국에 대한 저우추취와 같은 맥락에서 볼 수는 없지만 중국 정부가 이제 눈을 해외로 돌리는 시점에서 대북 투자에 대한 관심도 심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음.

33) 2003년 기준 중국의 원자재 수입의존도는 원유가 40%, 철광석이 50%, 구리가 80%, 알루미늄이 40% 등임.
중국기업의 대북한 투자에 관하여, 임금숙, 통일정책연구 14권 1호

34) 대한광업진흥공사

35) KOTRA 북한경제정보 2005. 5. 12

36) 중국기업의 대북한 투자에 관하여, 임금숙, 통일정책연구 14권 1호

(표 12)

90년대 후반 이후 중국 해외투자진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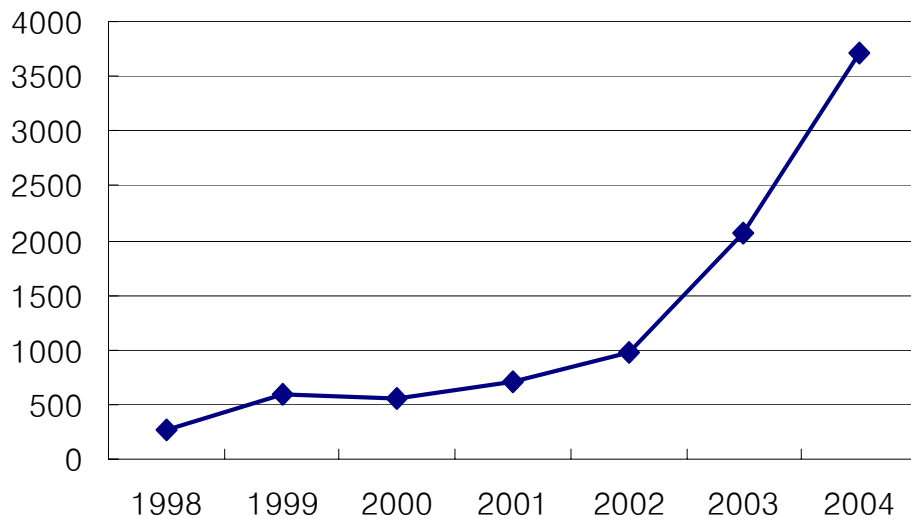
(단위 : 미\$백만, %)

년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누계
기업수	266	220	243	232	350	510	829	8,299
투자액	259	590.64	550.97	707.54	982.68	2,068.89	3,712.00	15,139.00
증감률	32	128	-7	28	39	112	77	

자료원 : 중국기업 해외투자 러시아와 시사점, KOTRA, 2005. 6

(그림 6)

90년대 후반 이후 중국 해외투자진출액 추이



- 동아시아 외환위기가 마무리되던 1999년부터 중국은 적극적으로 해외투자진출 정책을 추진(해외투자진출 절차 간소화, 해외진출 신용대출 우대금리 적용), 활발한 해외투자증가세를 보임. 2004년은 역대 해외투자진출이 가장 왕성한 한해로, 2004년 해외투자액은 98년에 비해 무려 14배나 성장함.

- 중국의 대북 경제전략은 12자 방침(12字方針)

- 대북 투자 컨설팅사인 북경화려경제문화교류유한공사 쑤홍타오(孫宏濤) 총경리에 따르면 중국의 대북 경제전략은 12자 방침(12字方針)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함.

- 12자 방침이란 정부주도, 기업참여, 시장운영을 의미하는데, 향후 중국의 대북투자는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기업이 정부 정책에 따라 대북사업에 참여하며, 대북투자는 시장원리에 따라서 운영하는 것을 의미함. 쑨 총경리에 따르면 시장운영에 대해서는 북측에서도 인정하고 있다고 함.

○ 北, 對中 투자유치를 통해 내부의 경제난을 해소하려 함.

- 북한의 경제난 해소를 위해 외자 유치에 주력

- 북한은 2002년 7월 경제관리개선조치를 취했음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경제관리개선조치가 경제회복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생산력 증대가 필수. 생산력의 증대를 위해 자체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내부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북한으로서는 외국인 투자와 원조 등 외부 자원의 유입이 필수.³⁷⁾
- 북한은 지난 1984년 합영법을 제정한 이래 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 신의주 특구 지정 등 외자유치를 위한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음.³⁸⁾ 또한 현재 남한과 진행 중인 개성공업지구나 금강산관광지구의 경우도 단기간의 파급효과³⁹⁾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 2004년 들어서부터 대외 투자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지난해 5월 “제7회 평양국제상품전”을 개최하였으며, 10월에는 세계해외한인무역협회(OKTA)와의 평양 무역상담회를 통해 해외 한인 무역인들의 對北투자를 독려⁴⁰⁾하는

37) 북한의 개혁·개방과 경제개발을 위한 우리의 지원 방안, 조용균, 외교안보연구원, 2003. 5

38) 합영법, 나진·선봉 경제무역지구를 통한 외자유치는 북한 내부의 근본적인 개혁·개방이 수반되지 않은 채, 북한식 사회주의경제체제의 틀 속에서 진행된 제한적 외자유치 정책이었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북한투자실무』 1995 P25~26 참조 / 신의주 경제특구는 초대 행정장관으로 임명된 양빈(楊斌)의 구속 이후 사실상 중단된 상태.

39) 북한의 입장에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 사업은 고용 창출 및 지대 수입 등을 예상할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사업이 북한 경제 회복의 실효로 이어지는 것은 비교적 먼 미래의 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북한은 개성 및 금강산 사업의 추진 이외에, 기간산업 및 외화벌이 주력 산업에 외자를 유치하여 내부 경제난 해소의 돌파구를 찾고 있는 것으로 보임. 중국의 對北투자 熱氣, 그 의미는?, KOTRA, 2004.2

40) 북한의 김용술 무역부장은 2004년 10월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평양-세계한인무역협회(World-OKTA)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중국을 포함한 외국의 투자를 북한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음⁴¹⁾. 또, 북한은 2004년 1월 “개성고려인삼 프레스간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10월에는 중국수출상품교역회(Canton Fair)에 38인의 대표단을 파견하는 등 대외 홍보활동에도 주력.

- 경제적 상호보완성으로 중국기업의 대북 투자 급증

· 북한은 각종 광산물이 풍부하나 자금, 기술이 매우 부족한 상태이며, 경제난으로 각종 생산재와 소비재가 매우 결핍되어 있는데, 중국기업들은 합작을 통해 제품과 설비를 제공해 줄 수 있음.

· 이러한 경제적 상호 보완성은 북한의 대외투자유치정책과 맞물려 중국의 대북투자가 급증하게 됨.

- 중국의 대북 투자 증대는 북-중 무역의 추가 증가로 이어짐.

· 중국으로부터 기계, 설비 등이 북한으로 들어가, 각종 생산단계에 투입되고, 생산물은 보상무역의 형태로 다시 중국으로 수출됨에 따라 투자 증가가 무역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

무역상담회에서 해외동포들의 투자유치를 호소하며 최저 임금을 80~120달러에서 37.23 달러(30유로)로 대폭 인하하고 각종 사용료 인하 등의 추진을 공언했음. “북 2004년.. 개방-폐쇄 두 얼굴”, 문화일보 2004. 12. 30

41) 지난 2004년 6월에는 중국정부 경제무역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하여 경제협조 관련 문건을 교환한데 이어, 7월에는 중국의 민영기업 경제사절단이 북한의 시장조사를 위해 방북했음. 또한 사천성 무역사절단도 지난 11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북한을 방문, 대북 투자 관련 좌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려짐. 연합뉴스 등 언론보도 종합

V.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도 현황과 전망

■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도 현황

○ 북한 무역 총액의 40%를 육박

- 2004년 기준 중국이 북한의 무역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남북교역 포함 시 39%, 남북교역을 제외하면 48.5%에 이름.
- 2005년 상반기 동안 북한의 주요 교역 파트너인 중국, 한국, 태국, 일본과의 교역 관계를 살펴보면 4개국과 북한 간 무역총액에서 중국이 51.7%, 한국이 31.7%, 태국이 10.2%를 차지.
- 2004년 4개국과 북한간의 무역에서 중국이 52.0%, 한국이 26.2%, 태국이 12.4%, 일본이 9.5%를 차지하였음(북한과 이들 4개국의 무역 총액 기준)을 볼 때, 2005년에는 북한의 교역 비중에서 중국의 강세가 유지되면서, 한국의 비중이 늘어나고, 태국과 일본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음.

○ 식량과 주요 생산요소 등은 대부분 중국으로부터 수입

- 원유 도입에 있어 중국산은 절대적인데, 2004년 북한은 해외 원유 도입량 중 86.8%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해마다 중국으로부터의 원유도입액이 증가하고 있음. (금액기준 전년동기대비 2004년 15.1%, 2005(1월~9월) 105.6% 증가)
- 중국산 곡물의 수입량은 지난해 중국의 곡물가 상승으로 주춤했으나, 올해 들어 크게 증가 하고 있음. (전년동기대비 295.5% 증가)
- 이와 같이 식량과 주요 생산요소에 대한 북한의 대중 의존도는 다른 품목에 비하여 더 눈에 띄게 높은 상황임.

○ 북한의 외자 유치 중 상당부분이 중국 자본

- 현재 중국의 전체 외자 유치 규모가 파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언론에 소개된 관계 인사들의 언급에 의존, 북한의 외자 유치 중 중국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을 가늠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사들의 발언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북한의 외자 유치 중 중국 자본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것임.
- 현재 기업수에서는 40%정도, 투자액 규모에서는 80% 정도가 중국의 것으로 추정됨.

○ 북한의 주요 지하자원에 투자 집중

- 북한의 주요 광물 자원 잠재가치는 약 2,287조원 5,000억 원으로 남한의 약 24배에 이룸.
- 마그네사이트와 텅스텐은 세계적인 매장량을 가지고 있으며, 무연탄과 철광도 상당량이 매장되어 있음.
- 중국은 경제 급성장에 따른 광물성 연료 및 철광 부족분을 북한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음.
- 북한은 질 좋고 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기계·설비의 부족과 인프라 미비로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현재 중국은 북한과 기계·설비의 지원, 인프라 구축 지원 등의 조건으로 북한산 광산 개발권을 취득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가 북한과 공동 개발하고 있는 광물은 흑연이 유일⁴²⁾
- 비료의 원료인 인회석 광산 개발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고 있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

42) 대한광업진흥공사

○ 인프라 건설, 서비스 분야 등 투자 영역 확대

- 중국은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으나, 인프라 건설 및 백화점과 같은 서비스 분야, 그리고 자전거, 트랙터 등의 제조업에도 투자를 하고 있음.
- 중국은 북한의 내수 시장, 그리고 남북간 무관세 메리트를 이용하여 한국 시장까지 겨냥한 투자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북한 내수시장을 목표로 하는 투자로서 북한의 빌딩 건설 붐에 따른 타일, 내장, 바닥 등 전자재 시장, 사료공장 등 농촌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들 수 있음.

■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도 전망

○ 후진타오 방북을 계기로 북-중 관계는 더욱 돈독해질 전망

- 이전 후진타오 방북을 계기로 '전통계승, 미래지향, 선린우호, 협력강화'의 16자 방침에 따라 북-중 관계는 더욱 긴밀해질 것으로 전망됨.
- 후진타오 체제 이후 이미 이념적 유대는 더 이상의 의미를 상실했으며, 각자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실용주의적 성격을 이어나갈 것이나 양자가 모두 실리적 이점이 있기에 북-중 관계는 지속될 전망.

○ 북한의 대중 무역 편향성은 더욱 커질 것.

- 북한은 체제유지와 김정일 정권 유지를 위해 식량과 에너지 확보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대외 결제수단이 부족한 상황에서 중국과의 국경 무역을 통하여 중국의 값싼 잉여 상품의 수입과 우호가격으로 제공되는 상품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임.
- 북핵문제의 해결이 지체된다면 미국과 일본의 대북경제제재는 지속

될 것이며, 이런 상황은 북한이 중국산 식량과 원유에 더욱 의존하게 할 것임.

- 북한의 대중국 거래품목을 살펴보면, 많은 부분이 다른 시장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것이라는 점도 대중국 무역 의존도의 심화를 되돌리기 어려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⁴³⁾
- 에너지, 철강, 기계, 식료품 등 많은 품목이 유리한 관세, 저렴한 물류비, 외화난 등에 의해 쉽게 다른 시장으로 옮겨가기 어려움.
- 일본시장에서 거래되는 대부분의 품목이 한국이나 기타 다른 나라 시장으로 대체하기가 용이한 것과는 대비되는 현상임.
- 중국의 대북 투자 급증은 북한과의 교역을 심화시킬 것임.
- 중국이 2005년 1월~9월간 북한으로부터 수입한 광물성 연료(27류)의 수입액은 전년동기대비 125.3%, 북한이 같은 기간 중국으로부터 들여온 기계류(84류)의 수입액은 전년동기대비 95% 증가한 것은 이미 중국의 대북투자 증가와 무역 증가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음.
- 현재 동북3성을 위주로 한 일반무역과 변경무역이 북-중간 교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중국 정부 주도의 대북 투자가 심화되면서 동북3성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대북 교역도 확대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북-중 교역의 증가는 일본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 제재라는 외부적인 조건과 더불어 북한이 기초시설이 부족한 가운데 개혁개방을 추진하면서 개발에 필요한 원동력을 외부로부터 공급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기인한 것으로서 특히 일본과의 교역 감소가 중국과의 교역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임. 현재로서는 물량면에서 대중국

43) 북한과 중국의 경제관계 현황과 전망, 조명철, KIEP세계경제 2005. 7

예측을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국 제품이 북한 시장을 선점하는 사례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으며 이런 추세가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북한 시장 개척의 기조 아래 지속된다면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임.

○ 중국자본의 북한진출 더욱 확대될 듯

- 중국의 투자진출정책(走出去,저우추취)으로 중국기업들의 해외 투자는 급격히 늘고 있는 배경 하에, 리스크가 있기는 하나, 중국기업들이 비교 우위를 발휘할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인 북한 지역에 대한 투자는 늘어날 것임.
- 현재까지 중국의 대북투자가 소규모 자원형 투자와 수출 가공형 투자에 그쳤던 반면, 앞으로는 북한내부시장을 목표로 하는 인프라 구축형 투자로 확산될 것임. 또한 중국정부가 대북 투자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기존의 자원형 투자와 수출 가공형 투자 또한 큰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지난 달 북한을 방문한 우이 부총리는 20억 투자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까지 작은 규모 프로젝트에 그쳤던 대북 투자는 건설, 항만, 제철소, 도로 등 기간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투자로 대북 투자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을 암시하고 있음. 이와 같은 우이 부총리의 방북 성과는 벌써 우이 부총리와 함께 방북했던 오광그룹이 북측과 탄광 공동 개발 합영회사 설립에 합의함으로써 현실화되고 있음.
- 중국 철도부는 최근 단둥시 정부의 주선으로 홍콩국제산업발전유한공사 등 기업이 심양철도국 단둥철도국제연합운수총공사, 단둥철도역 및 북한 철도성과 합자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에 동의하였음.⁴⁴⁾

- 이처럼 중국은 인프라형 투자를 속속 진행하면서 이로 인한 직접적인 이득을 챙기는 동시에 구축한 인프라를 통해 북-중 교역을 활성화시키면서 추가적인 경제적 이득을 추구할 것으로 보임.
- 중국의 동북3성 개발계획의 추진은 중국의 대북투자를 가속화시킬 것임.
- 기계설비, 석유화학, 가전, 철강과 같은 대형 국유기업의 설비 고도화와 함께 에너지 및 철도, 도로 등의 운송 인프라 개선을 위해 추진되는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에는 낮은 가격의 원자재 수요가 증가하여 중국의 북한 자원 개발을 가속화시켰으며 더욱 확대할 것임.
- 양 정부의 지원 정책이 지속되고 있음.
- 최근 북한은 외국인투자 3원칙(우선상환, 실물지원, 통일결제)을 제정해 외국인 투자자의 합법적 이익을 보호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지난 10여년간 북한경제관련 현안사항 중 하나였던 외국투자자금 회수에 대한 보장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해 주었음.⁴⁴⁾
- 중국의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는 총회 차원에서 최초로 2006년 5월 평양국제상품전람회에 국가관으로 참가하기로 하였으며, 각 지방 소재 분회 조직을 이용하여 참가업체를 모집할 예정임.

44) 주간흑룡강신문 2005. 11, 20~26

45) 주간흑룡강신문 2005. 11, 20~26

VI. 북-중 경제 관계 심화의 영향과 우리의 대응 방안

■ 북-중 경제 관계 심화의 영향

○ 북한경제에 긍정적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

- 북핵 문제로 국제적 고립의 위기에 처해 있는 북한이 산업발전을 위한 원자재, 그리고 주민생활의 필수품 등을 조달할 수 있는 든든한 수입대상국과 외화벌이를 위한 수출대상국이 존재한다는 것은 북한 경제에 있어 긍정적.
- 또한 중국의 대북 투자 증가로 운송·물류 인프라의 구축, 자원 개발 및 활용과 같은 각종 프로젝트들이 본격화되면서 북한경제회생과 산업재건에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할 것임.
- 특히 자원개발에 대한 투자는 전후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공업, 교통운수업 등 일련의 관련 영역에 적극적인 영향을 미칠 것.
- FDI(해외직접투자)의 증가는 금융, 조세, 기업의 운영관리 방식 등 많은 부문에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므로, 북한 경제의 개혁·개방에 긍정적 효과로 나타날 수 있음.

○ 장기적으로는 북한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⁴⁶⁾

- 북한이 제품을 생산해 내수시장을 구축하기 전에 중국 제품의 소비지로 전락하게 될 수 있음.
- ‘자체적인 자본축적을 통한 생산증가 → 소비증가 → 투자증가 → 자본축적’의 선순환 발전구조를 형성하지 못하고, 대신 ‘소비재의 수입대체 → 생산중단 → 자본축적의 실패 → 재투자 중단’이라는 악순환 구조가 심화될 수 있음.

46) ‘경제혁명?’ 중국자본, 북한점령 가속화, 남성욱, 신동아, 2005. 12

- 중국 자본의 대북 진출의 확대는 남한의 대북 진출 기회를 약화시킬 것인 바, 남북경제교류 협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북-중 경제 관계 심화의 순효과가 악영향을 상쇄, 혹은 능가하지 못한다면 북한 경제가 중국 경제에 예속될 수도 있다는 우려는 현실화 될 수 있음.

■ 우리의 대응 방안

- 북-중 경제 관계가 지나치게 심화되는 것을 견제하는데 있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은 매우 제한적.
 - 양국의 투자 협정 등에 우리 정부가 이의를 제기한다면 내정간섭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
 - 또한 한국이 중국에 대항하여 북한에 대한 투자를 무한대로 확대하기도 어려움.
- 우리는 북-중 경제관계의 심화가 북한의 대중국 종속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시의적절하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할 것.
 -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중국은 영향력을 가지고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따라서 중국과의 경제·정치·안보적인 유대관계를 강화해 나가면서 북한의 개혁·개방에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끌어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함.
 - 그러나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북한의 대중 경제 종속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국과 일본 등 우방국의 역할을 이끌어 내 한반도의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노력할 필요도 있음.

[부록]

최근 중국의 대북한 품목별 수출입 금액

(단위: 천불, %)

구분	수출			수입		
	2004(1-9)	2005(1-9)	증감률	2004(1-9)	2005(1-9)	증감률
1. 산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	144,259	82,631	-42.7	121,676	103,930	-14.6
01 산동물	0	0	-	104	51	-51.5
02 식용육류	0	0	-	115,603	98,877	-14.5
03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등	144,072	82,452	-42.8	5,261	3,101	-41.1
04 낙농품,조란,천연꿀 등	0	0	-	79	188	138.0
05 기타 동물성 생산품	187	179	-4.0	629	1,714	172.6
2. 식물성 생산품	9,387	10,243	9.1	42,189	80,894	91.7
06 산수목과 기타식물 및 인경뿌리 등	4	0	-100.0	39	37	-6.9
07 식용채소,구근	2,128	1,936	-9.0	6,275	3,695	-41.1
08 식용과실,견과류	2,818	3,534	25.4	2,675	2,272	-15.1
09 커피,차,향신료	15	19	29.0	372	569	52.9
10 곡물	7	0	-100.0	13,245	47,219	256.5
11 제분공업의 생산품	89	104	16.0	9,357	16,911	80.7
12 종자와 과실, 공업·의약용 식물	3,802	4,580	20.5	10,140	10,101	-0.4
13 아교,수지 및 기타 식물성 액,즙	183	55	-70.2	15	88	499.8
14 식물성 편조물용 재료	342	15	-95.6	72	0.5	-99.4
3. 동식물성 유지 및 분해생산물	18	0	-100.0	833	4,345	421.5
4. 조제식품,음료,알코올,식초 및 담배	224	182	-19.0	21,047	29,706	41.1
16 육류,어류,갑각류 등의 조제품	95	105	10.5	1,500	2,951	96.7
17 당류 및 설탕과자	0	0	-	967	1,771	83.1
18 코코아와 그 조제품	0	0	-	149	172	15.0
19 곡물,전분,유제품,베이커리제품	0	0	-	2,498	5,549	122.2
20 채소,과실,견과류의 조제품	112	20	-82.0	522	617	18.1
21 기타조제식료품	15	35	141.3	119	382	221.2
22 음료,알코올 및 식초	2	0.4	-81.7	2,964	5,977	101.7
23 식품공업 발생 잔유물/웨이스트	0	0	-	5,132	3,321	-35.3
24 담배	0	21	신규	7,196	8,966	24.6

5. 광산품	72,524	149,799	106.6	118,057	212,540	80.0
25 소금,황,토석류 및 석고,석회,시멘트	937	994	6.1	1,728	4,410	155.2
26 광,슬랙 및 회	34,953	66,255	89.6	121	101	-16.6
27 광물성연료,광물유	36,633	82,550	125.3	116,208	208,029	79.0
6. 화학공업 또는 관련 생산품	306	398	29.8	36,223	55,853	54.2
28 무기화학제품,귀금속,희토류금속 등	274	226	-17.5	7,571	12,145	60.4
29 유기화학제품	0	0.1	신규	5,865	8,686	48.1
30 의약품	0	0	-	595	780	31.0
31 비료	0	1	신규	10,472	16,861	61.0
32 염료,안료,페인트	14	57	299.5	2,113	3,041	43.9
33 조제향료,화장품류	2	0	-100.0	376	877	133.0
34 비누,세제 등	9	29	216.7	3,537	5,444	53.9
35 단백질물질,아교,축매제	0	0	-	589	859	45.7
36 화약,화학제품	0	0	-	0	24	신규
37 사진용 또는 영화용 재료	0	0	-	1,325	1,469	10.9
38 기타 화학제품	6	83	1,233.5	3,779	5,666	49.9
7. 플라스틱 및 고무제품	648	2,676	312.8	25,493	45,316	77.8
39 플라스틱 및 그 제품	564	2,063	265.4	20,597	35,300	71.4
40 고무 및 그 제품	84	613	631.8	4,896	10,016	104.6
8. 원피,가죽,모피 및 그 제품	65	80	24.2	761	775	1.8
41 원피와 가죽	0	12	신규	11	319	2,724.8
42 가죽제품,여행용구,핸드백	41	3	-92.0	432	372	-13.8
43 모피,인조모피 및 그 제품	24	65	170.5	318	83	-73.8
9. 나무 및 그 제품	12,707	10,593	-16.6	743	836	12.5
44 나무,나무제품,목탄	12,635	10,583	-16.2	737	825	12.0
46 짚,에스파르토 또는 조물제품	72	9	-86.8	5	11	83.6
10. 펄프 및 종이관련 제품	20	179	779.3	6,246	8,527	36.5
47 펄프,폐지	11	55	405.5	209	386	85.1
48 종이,판지 및 그 제품	9	44	371.5	5,635	7,622	35.3
49 인쇄서적,신문,기타인쇄물	0	79	신규	402	518	29.1
11. 방직용 섬유와 그 제품	35,383	48,511	37.1	30,676	54,183	76.6
50 견	1,839	1,634	-11.1	0	0.4	신규
51 양모 및 그 직물	0	281	신규	719	1,556	116.5
52 면	40	22	-45.2	1,774	6,754	280.7
53 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유와 그 직물	4	30	629.8	225	788	250.5
54 인조필라멘트섬유	20	162	703.0	11,798	18,922	60.4

55 인조스테이플섬유	9	64	609.7	4,049	7,539	86.2
56 워딩,펠트,부직포 등	50	6	-88.5	2,927	4,761	62.7
57 양탄자류와 바닥깔개	0	0	-	14	22	49.9
58 특수직물	24	14	-40.9	1,068	1,442	35.0
59 침투,도포,피복,공업용 방직 용섬유	87	0.2	-99.8	1,613	2,847	76.5
60 메리야스편물과 뜨개질편물	15	2	-88.7	764	2,015	163.6
61 의류/부속품(메리야스,뜨개 질편물)	2,629	3,988	51.7	3,274	3,989	21.8
62 의류/부속품(메리야스,뜨개 질편물외)	30,662	41,387	35.0	1,219	1,367	12.1
63 방직용섬유의 기타제품	1	920	59,343. 0	1,229	2,179	77.3
12. 신발,모자,우산 등	37	31	-16.6	3,224	3,807	18.1
64 신발류	18	17	-4.1	2,847	3,382	18.8
65 모자류	19	7	-64.3	43	107	147.0
66 우산,지팡이,스틱 등	0	0	-	309	202	-34.6
67 조제우모와 솜털 및 그 제품	0.02	7	29,304. 3	25	116	366.1
13. 석,플라스터,시멘트,도자,유 리제품	46	3	-93.7	9,043	16,961	87.6
68 석,플라스터,시멘트 등의 제 품	36	2	-95.3	1,668	2,842	70.4
69 도자기	9	1	-87.9	4,975	9,552	92.0
70 유리와 유리제품	0	0	-	2,401	4,567	90.2
14. 보석,귀금속류	11	22	103.3	16	113	615.3
71 보석,귀금속류	11	22	103.3	16	113	615.3
15. 비금속 및 그 제품	71,599	71,361	-0.3	47,249	59,461	25.8
72 철강	57,546	54,419	-5.4	31,280	29,056	-7.1
73 강철제품	148	28	-80.9	9,735	17,453	79.3
74 동과 그 제품	279	213	-23.5	766	2,476	223.4
75 니켈과 그 제품	873	1,865	113.7	355	803	126.1
76 알루미늄과 그 제품	919	1,145	24.5	2,765	5,619	103.2
78 연과 그 제품	1,654	2,906	75.7	9	38	286.0
79 아연과 그 제품	10,088	10,780	6.9	0	693	신규
80 주석과 그 제품	0	0	-	168	114	-32.2
81 기타 비금속제품	0	0.4	신규	620	1,106	78.3
82 비금속제의 공구,도구	24	0	-100.0	226	341	51.1
83 비금속제의 각종제품	67	2	-97.3	1,323	1,761	33.1
16. 기계류,전기전자기기 및 부	2,400	1,952	-18.7	57,434	89,601	56.0

분품						
84 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546	508	-6.9	26,591	52,645	98.0
85 전기기기,음향,영상설비 및 부분품	1,855	1,444	-22.2	30,844	36,956	19.8
17. 차량,항공기,선박 및 운수설 비	1,012	1,212	19.8	13,303	24,550	84.6
86 철도,궤도용 기관차,신호설비	0	0	-	599	2,111	252.6
87 차량 및 그 부품	0.02	0	-100.0	12,614	20,803	64.9
89 선박과 수상구조물	1,012	1,212	19.8	90	1,636	1,711.8
18. 광학,의료기기,시계,악기	36	145	305.1	1,732	2,728	57.5
90 광학,의료기기,부품	36	139	289.6	1,276	2,335	83.0
91 시계 및 부분품	0	0	-	229	133	-42.3
92 악기 및 부분품	0	6	신규	226	261	15.1
19. 무기,탄약 및 그 부품	0	0	-	27	3,342	12,503. 9
93 무기	0	0	-	27	3,342	12,503. 9
20. 가구,완구 및 기타제품	24	4	-82.6	6,469	4,845	-25.1
94 가구,침구 등	0	2	신규	2,612	567	-78.3
95 완구 및 부분품	19	1	-94.6	484	4,275	782.5
96 기타제품	4	0.6	-83.3	3,372	2	-99.9
21. 예술품,골동품	12	3	-76.2	0	0	-
97 예술품	12	3	-76.2	0	0	-
22. 특수교역 및 미분류	0	0	-	1,620	6,571	305.5
98 기타교역	0	0	-	1,620	6,571	305.5
합 계	350,719	380,026	8.4	544,060	808,885	48.6

작 성 자

◆ 이상민 책임연구원(동북아팀)

북-중 경제관계 현황과 전망
-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도를 중심으로 -

발행인 : 홍기화

발행처 : KOTRA

인쇄처 : 학림사 02)752-0463

발행일 : 2005년 12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9
(우 137-749)

전 화 : 02)3460-7114(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Copyright © 2005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